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다음교회'를 돕기 위한 초록장터가 오늘 11시에 배 후 교회 마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천시 교육관과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일은 청파교회 설립 10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를 기념해 오후에 '공감 음악회'가 열립니다.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29일(화) 저녁 6시 정동 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설거지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김기석 목사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의 작은 흔들림> 이라는 제목의 기도집입니다.

김세진 교우의 아버님이신 김화수 성도가 23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이번 주간도 세월호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매일 촛불을 밝히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22~32 / 시 16
벧전 1:3~9 / 요 20:19~31

고후3:1-6

오늘 식당 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최희영 오미경 문복순 김정민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홍재 차혜심 광권희 정연희 한상경 김명순 최철수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떡 대 접 : 민석준 고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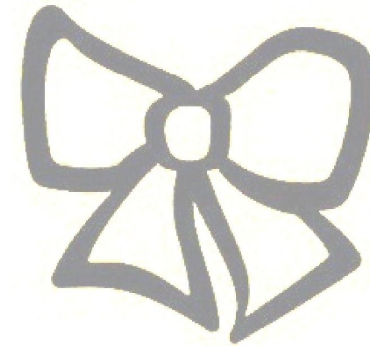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기업, 책임과 의무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개인, 재난을 당한 이가 국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회입니다. 주님, 채 피지도 못하고 저버린 어린 생명들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사회가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보다 큰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자식의 생환만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또한 그들 곁에서 이 일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경혜 김승현 김수진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진선 김흥기 변재민
 이소혜 이경남 이광섭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왕중 송상경
 이윤석 박안수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장원호 박성희 정상천
 김원경 정영례 정원석 김현영 조관행 홍선희 조병주 한기택 홍순복
 무명

감사헌금

강인식 김정숙 김정은 김진중 류준모 심호선 민서울 민세아 박시원
 방선영 정중모 은종인 이은진 한창희 김미진

생일감사헌금

김재광

녹색꿈헌금

김주현

백혜숙	박성희	장혜숙	박영희
신진식	최경미	차혜심	심희화
장영숙	신영신	김진경	이명희
노순옥	진정숙	박옥순	조병주
박홍재	박홍재	조영순	김윤수
권미숙	박미영	배삼순	정영례
김금순	김금순	이순정	강순배
곽권희	윤수진	이윤미	김재광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이수정
정영선	홍춘숙	정송양	김영민
박혜경	박혜경	심상숙	김민화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 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시대의 어둠을 타하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하나 밝혀 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변을 타할 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시대의 어둠에 대한 불평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선 곳에서 횃불 하나 밝혀들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초록장터	오편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윤정덕 장로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곽권희 권사 유경순 권사

4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종락 이성범 정경례 박영신 한상경
	헌금위원	방문성 김금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청과 초록장터에 오세요, “마중물”이 되어 주세요.

<‘서울역 다음교회 이야기’ 통권 4호 중: “다시 서울역 예배를 시작하며”>

(전략) 가난한 이들이 마음 붙이고 신앙 생활할 만한 교회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서울역 다음교회>가 서울역 광장 한 모퉁이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니 그저 고마울 뿐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 메운 여느 교회 예배당보다도 허름한 옷차림에 낯새 좀 난다 해서 부끄럽지 않은 천막 안,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서울역 광장에서 가난한 이들을 깨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들에게 밥과 옷, 잠자리를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서울역 다음교회>가 지닌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따져볼 것도 없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서울역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보이는 것이 <서울역 다음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서울역 식구들 문제를 아주 단순히 돈과 연결해서 답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내세우면서 계획을 세우곤 한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가난한 이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은 현실에 대해 잊어버리도록 선심을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중략) ... 그러한 뜻을 살려 <서울역 다음교회>는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여러 길을 찾을 것이다. 또한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억지로 손을 벌리도록 그들을 더욱 비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문화에 대해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 때때로 무슨 단체들이 스스로를 옹기 보이며 가난한 이들을 모여들게 해서 뭐 좀 준답시고 하는 일은 가난한 이들이 마지

막까지 지켜야할 품위와 존엄함(dignity)을 짓밟고 그들을 비굴하게 만든다. <서울역 다음교회>는 이에 맞서 가난한 이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거짓 나눔에 반대하고,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다. 또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근본 물음을 끊임없이 던질 것이다. (허운호 목사, 서울역 다음교회)

오늘도 거칠고 두려운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갑니다. 이 가운데 “두레박,” “마중물” 이 되어 달라며 우리 청과 교우들을 초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청과교회에서 서울역 가는 길에 있는 두 개의 굴다리 아시죠? 이 중 두 번째 굴다리를 지나는 가까운 이웃에 <서울역 다음교회>는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 월세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눠 내고자 하는 공동체와 개인의 도움을 “두레박”이라 합니다. 나누어 받은 물품들은 “마중물”이라 하구요. 마른 펌프에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퍼붓고 열심히 펌프질하면 모두가 마시고 남은 물이 팔팔 솟구치죠. 이번 청과 초록장터는 우리가 <서울역 다음교회>의 “두레박”과 “마중물”이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물건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생각하며 자원을 재사용하고 이웃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장터는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우리들이 정성을 담아 아끼고 소중히 했던 갖가지 물건들이 초록장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무엇이 있는지 구경하러 오세요! 그것들이 새로운 쓰임을 갖는 가운데 생기는 수익금은 <서울역 다음교회>를 지원하는데 모두 사용됩니다. 번거롭지만 보람과 뜻이 있는 나눔 실천, <서울역 다음교회>와 청과 초록장터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